



"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"

뜻: 아주 예쁜 사람은 자기 외모만 믿고 성격이 좋지 않아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,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착한 마음씨와 행동으로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외모 · 태도 · 관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일	색	↓	소	박	은	↓	있	어	도
박	색	↓	소	박	은	↓	없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일	색	↓	소	박	은	↓	있	어	도
박	색	↓	소	박	은	↓	없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ㅇㅅ] [ㅅㅅㅇ] [ㅇㅇㅅ] [ㅅㅅ] [ㅅㅅㅇ] [ㅇㅅ]

웹에서 보기

